

## 함께 하는 호스피스

김은경/강남 성모 병원 간호사

**저**는 재수 시절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씨클을 할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친구의 권유로 호스피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병원에서 만나게 될 환자들을 미리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암환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고 병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첫 환자는 10층 서병동에서 저보다 한 살이 많은 골육종의 환자였습니다. 장녀여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대전에서 혼자 올라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토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박박 짝은 머리에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가 생겼다면 좋아하는 환자에게 간호사님은 간호대학 학생인데 봉사나왔다며 절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어떤 씨클인데 이런 일을 하나며 자꾸만 씨클 이름을 물었습니다. 전 '호스피스 모임이요'라고 이야기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호스피스라면 누구나 죽음을 연상하므로 환자가 충격을 받을까봐 우물쭈물하다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웃는 모습으로 혼자 있어 쓸쓸하다며 자주 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면 전 호스피스 봉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환자를 찾아가 같이 밥도 먹고 사달라는 책도 사주고 음악도 들으며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 후 환자는 '관해' 상태로 들어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외래로 올 때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 후 1년 반 정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환자는 다시 재발되어 재입원 하게 되었고,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는 달리 환자의 엄마가 옆에 계셨고, 언니의 웃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퇴원을 하고 외래 방문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대전으로 전화를 하니, 환자의 아버지께서 “우리 딸 하늘로 시집갔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댄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는데, 언니와 저 사이에는 벽이 있었나 봅니다. 환자와의 벽을 깨고 싶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것 즉, 식사하고 움직이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 등을 알고 도와주는 호스피스 병동이 좋아 저는 이곳에서 환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외과의 비뇨 기과 병동에서 1년 3개월을 경험한 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생활도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호스피스라면 누구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환자와 하나가 되리라는 생각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반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이라 많이 예민해지고 보호자들도 힘이 들어 우리들의 진심을 몰라줄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여자 폐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병원, 저병원 다니시며 치료를 받아서인지 무척이나 예민하고 하나하나 처치에 까다로운 환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고 구박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등마사지도 해드리고 간호 처치도 하고, 숨차할 때는 옆에서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아침마다 수녀님이 방문하셔서 성가와 기도도 해드리니 환자분도 차츰 저희들과 농담을 할 정도로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이라 그런지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임종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나 갈 때, 꼭 옆에 있어줘. 있어 줄거지?” 하면서 다른 것은 두렵지 않은데, 혼자 있다가 갈까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있겠다고 안심시켜 드리면 밝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 힘들어 하셨지만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화해하시고 고통없는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저는 그곳에 있었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삶과 함께 숨쉬고 있는데도 우리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보며, 나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됩니다. 학생일 때나 지금이나 제 곁을 스쳐가 환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베푼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일 때는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괴로워 한 적도 있으나 함께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가족들이 죽음이란 고통을 이기는 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의 호스피스 활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들어줌으로써 위안도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의 근본 정신은 호스피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환자들과 함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손에서 나오는 기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환자, 가족, 모든 이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